

서평

擴大メコン圏の經濟地理學 - 國境經濟と空間政策 -
(확대메콩권의 경제지리학 - 국경경제와 공간정책 -)

生田眞人(이쿠타 마사토), 2020, 京都: ミネルヴァ(미네르바)書房, 342쪽.

韓柱成*

이 책은 R. Lütgens가 선구자인 경제지역지리의 관점(經濟地理學會 編, 2018: 8)에서 저술한 것으로, 확대된 메콩 권의 구상은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도해 진행하다가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지체되었으나 중국의 경제성장과 인도차이나 반도 여러 국가의 정책전환으로 21세기에 들어와 다시 전개되었다. 이 책은 3부 9개 장과 후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방법론의 모색)의 제1장(D. Harvey의 공간개념에서 본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1950년대 이후 인문지리학의 접근방법을 언급하면서 Harvey가 계량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로 전환하고 인문주의지리학을 비판하는 가운데 장소가 사회적 프로세스 산물의 구축물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경제지리학의 새로운 조류인 진화·관계론적·제도경제지리학을 거론하면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연의 가치, 나아가 인문지리학에서의 가치까지 언급하며 Harvey 지리학의 이론구축과 장소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Harvey의 마르크스 이론에 의한 9종류의 공간성¹⁾으로 인도차이나 반도를 사례로 일반성을 해명하고자 했다. 또 공간성 매트릭스(matrix)가 사회현상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사회변혁의 기초이론이 되며, 이것이 지리학 이론화의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지리학자인 N. Brenner의 리스케링(rescaling)²⁾이 촌락, 도시, 국가, 초국가조직의 공간적 顯在化를 재편하

나 국내·국제수준의 재편은 다른 측면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Harvey의 공간개념으로 확대메콩권을 고찰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제2장(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지리적 공간에서 개인과 사회)에서는 먼저 체계화된 9종류 공간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캄보디아의 폴 포트 정권, 미얀마의 소수민족문제와 노점 상인을 사례로 들었다. 또 미시적 시점과 거시적 고찰의 관계를 개인적 차원에서 심상지도, 이미지, 의식, 기억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역사 등의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사회인 확대메콩권의 차원을 순차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연결시키는 매개개념으로 차원(계층)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5개 차원(개인·가족, 기초자치단체, 대도시권과 지방권, 국가, 확대메콩권)에서의 특징적인 여러 제도들을 열거하며 이들을 연결시켜 공간성을 밝히고자 했는데, 이들 차원과 또 제도들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했다.

제2부(국가의 공간적 재편)의 제3장(국경지대의 산업집적)에서는 지역정책과 공간정책을 기술한 후 국경경제의 사례로 1990년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형성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삼각지대가 내륙으로 확대된 것을 들었다. 또 타이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국경경제에서 국가공간계획은 공업의 발달이 인접국의 저임금노동력을 이용하게 되며, 댐, 고속도로의 건설과 자금지원은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shan@chungbuk.ac.kr)

교통로 이상의 커다란 효과를 거두어 새로운 지역통치의 경제회랑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리고 타이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으로 투자의 국경경제와 캄보디아의 공업화가 인접국가의 노동력과 전력자원이나 공산품, 관광자원 등을 활용함으로써 국경경제가 급속히 확대되어 메콩 권 전체의 경제회랑 형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 일상생활의 안전망 구축이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이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 때문이라 했다.

제4장(타이의 공간정책)에서는 먼저 타이의 12차에 걸친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 수도 방콕을 포함한 6개의 광역지방계획을 살펴보고, 지역 상업으로 백화점, 슈퍼마켓, 그리고 고속철도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또 18세기 후반 왕도로 선정된 방콕 수도권의 도시성장, 산업단지, 교통망, 항만, 신공항 등에 의한 교외화를 살펴보았다. 한편 중산층과 이민노동자에서 베트남의 여성들이 타이에 단기비자로 취업하고, 미얀마인은 불법취업이 많다고 서술했다. 이어서 지방권의 관광개발로 임해리조트의 건설 등이 동남아시아에서 2위의 관광국으로 방콕 중심의 경제재편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푸켓의 역사와 지역경제의 동향을 살피고 리조트 개발로 1980년대 중기에 산업구조가 주식광업에서 고무·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었다고 했다. 다음으로 북부거점도시인 치앙마이의 인구, 소매업 및 관광에 대해 설명하고, 임해 리조트 푸켓의 옛 라너(Lan Na) 왕도 관광지와 비교·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권의 미시와 거시 고리(loop)³⁾로 양권의 지역격차를 축소시킬 정책과 국제적 스케일에서 국경의 산업집적현상을 연동한 리스케링으로 본 공간정책을 북동부 내륙지방의 노동력 및 사회와 지역변화로 살펴보았다. 또 말레이 반도의 타이 령 임해 리조트의 개발역사, 화교와 그 지손인 화인이 주식광의 쇠퇴로 소매·서비스업에 참여하게 된 점도 파악했다. 그러나 별도의節에서 치앙마이와 푸켓에 대한 내용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으며, 쿠데타로 인한 군부개입의 내용은 많지 않아 오히려 리스케링으로 대체되었으면 한다.

제5장(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지역재편)에서는 베트남

과 캄보디아와의 관계와 거시·미시적 고리를 국가와 지방의 관점에서 파악했다. 먼저 베트남의 공간정책에서는 계획경제와 도이 모이(đổi mới)에 의한 공간계획 4단계와 각 지방의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산업정책변화 및 토지제도와 도시계획을 중국과 비교·설명했다. 또 하노이와 호치민의 도시형성의 역사적 경위와 물, 주택 등 도시문제의 심각성과 직주근접의 도시구조 및 일본계 기업의 진출과 식품가공, 섬유, 요업 등 농촌공업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다음으로 캄보디아는 정비되지 않은 토지제도의 역사와 정부관리 토지인정(concession)의 토지개발은 경제적 토지인정과 소규모의 사회적 토지인정으로 구분하고 도시개발에 관해 언급했다. 다음으로 프놈펜의 도시개발 역사는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후의 도시개발과 사업체 분포 및 앙코르 와트를 포함한 씨엠립(Siem Reap)의 관광개발에 대해 기술했다.

제6장(미얀마와 라오스의 도시성장)에서는 미얀마의 식민역사와 사회주의 전개 및 그 후의 시장경제 도입과 함께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계획한 경제특구, 新수도건설 등의 공간계획을 살펴보았다. 또 미얀마 전체의 공간계획과 국토문제를 파악한 후 양곤과 네피도(Naypyidaw)를 검토했다. 이어서 중국과 접경을 이루는 라오스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시·거시적 고리의 관점에서는 라오스의 지방도시 루앙프라방(Luang Phabang)의 아시아에 출현한 소수민족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제7장(중국의 리스케링과 윈난성·광시 좡족자치구)에서는 중국의 공업발달과 지역개발 및 지방분권과 토지제도, 그리고 중국의 리스케링 진전과 홍콩의 제도적 대응을 설명했다. 또 2장~7장에 대한 확대메콩권의 국가별 도시와 지역재편을 미시·거시적 고리와 리스케링에도 주목하고 정리했다. 리스케링은 미시적 측면의 요구나 거시적 측면의 결정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라는 정치제도 하에서는 거시적인 결정의 측면을 강하게 나타낸다고 했다.

제3부(대륙부와 도서부)의 제8장(동남아시아의 도시화)에서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도시화과정과 외국노동

자로서 가사노동의 역할, 말레이시아의 식민지과정과 독립 후 쿠알라룸푸르 수도권 정비 및 대도시권 개발을 설명했다. 또 말레이시아의 경제와 개발정책의 특징을 시기별로 파악하고 그 추진과정을 서술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대륙부와 도서부의 인구변화 및 자카르타와 바탐(Batam) 도시권에 대해 기술하고,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대도시의 특징과 그 모델을 1960년대와 현재를 비교·설명했다.

제9장(동남아시아에서 확대 메콩 권)에서는 책 전체 내용을 매듭지으며 인도네시아의 욱야카르타/족자카르타(Yogyakarta 또는 Jogjakarta), 발리의 리조트 개발형의 관광과 관련 산업 및 외국자본 의존의 공업화를 타이와 비교·설명하고, 지역구조의 재편은 정부조직의 특징 및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나 중앙·지방정부의 인재 부족으로 안정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대륙부는 확대메콩권 형성이 국가수준을 넘어 지역통합으로 진행되어 각 국가의 지역구조도 이에 따라 재편된다고 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공간정책에서 6개의 경제회랑⁴⁾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각 국가의 지역구조는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수도권 진출과 관광객에 의해 형성되어 선진국에 종속적이며,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간계획에서 토지문제 및 ADB와 각국 정부의 주체가 공간정책을 결정한다고 했다.

이 책은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에서 공동체 형성의 하나의 수단인 메콩 권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정부주도 공간정책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진전된 정책과 메콩 권의 정비에 주목하여 상세하게 서술했다. 경제지역지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메콩 권은 인구증가, 경제, 글로벌화 영향, 제도, 자연요인으로 수도권과 해안지역의 도시성장을 가져왔으며, 중국의 일대일로가 동남아시아 인프라 건설에 진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끝으로 경제지역지리의 내용구성을 국경경제와 공간정책의 관점에서 500여 참고문헌을 활용해 확대메콩권의 지리적 정보를 자세하게 담

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시·거시적 순환 고리로 재편되는 것을 차원 분석했다. 그러나 메콩 강 유역뿐만 아니라 그 밖의 동남아시아 국가를 다루면서 필리핀이나 브루나이, 동티모르의 언급은 없어 책제목에 ‘메콩 권과 그 주변국의 국경경제와 공간정책’이라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곳곳에 중복되고 주제와 어긋난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은 옥의 티라 할 수 있다.

주

- 1) 표의 왼쪽에는 절대적·상대적·관계적 공간을, 표의 위쪽에는 물질적 공간, 공간의 표상, 표상의 공간으로 3행 3열 각각의 행렬공간을 말한다.
- 2) 지역사회학에서 촌락·도시·국가·초국가조직을 공간적으로 顯在化해 다시 편성한 것을 가리킨다.
- 3) 미시적에서 거시적에 이르는 여러 관계의 시슬로 리스케링을 포함한 여러 변화와 도시나 지역, 그리고 국가의 여러 변화를 보다 깊게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수마트라, 자와(Jawa), 칼리만탄, 술라웨시, 발리누사·텐가라(Bali Nusa-Tenggara), 파푸아-말루쿠(Papua-Maluku) 군도 경제회랑을 말한다.

참고문헌

經濟地理學會 編, 2018, 키워드로 읽는 經濟地理學, 東京: 原書房.

교신: 韓柱成, 05507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신천동, 파크리오)

Correspondence: Ju-Seong Han, Parkrio, Shincheon-dong, 435 Olympic-ro, Songpa-gu, Seoul city, 05507 Korea

최초투고일 2021년 12월 06일
수정일 2021년 12월 06일
최종접수일 2021년 12월 06일